

여성 가족사 소설의 ‘의례와 연대성’

-〈토지〉, 〈미망〉, 〈흔들〉을 중심으로

오세은

여성 가족사 소설의 ‘의례와 연대성’

-〈토지〉, 〈미망〉, 〈혼불〉을 중심으로

오세은

국문초록

이 글은 현대 소설사에서 가족 소설의 계보학이 전적으로 남성적인 보편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에 주목하여, 가족 소설에서 성 담론의 일단을 모색하고 여성 가계의 의미 확장을 시도해 보려는 의도이다. 가족 소설에서 성 담론의 확장이 어떻게 여성이라는 타자를 중심으로 하여 전통 가족의 질서를 전복 해체시키며 이질화되어 여성 가계 중심의 서사체를 형성하는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가족 소설에서 성 담론의 양상과 그 일환으로서 여성 가계 구조를 주된 논제로 삼으려는 이유는 이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서는 완전한 의미의 현대적 가족 소설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서사체에서 여성의 가계는 아버지 - 아들을 위해, 혹은 아버지와 남편을 가장으로 이상화하기 위하여 억압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의 가족 소설에서 가계의 연대성은 주체인 남성 가계를 근거로 하기보다는 타자인 여성 가계나 다양화한 주변 인물로 대체되곤 해 왔다. 이와 함께 여성 작가들 내부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질서에 대한 전복의 욕망을 지속적으로 꿈꿔왔다. 여성 가족사 소설에 나타난 전복의 욕망은 가족의 중심 권력을 이동시켰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주제 단위가 바로 ‘가족 의례’이다.

박경리의 〈토지〉, 박완서의 〈미망〉 그리고 최명희의 〈혼불〉 등 여성 가족사 소설에서는 주요

'가족 의례'인 탄생 의례, 혼인 의례 그리고 조상 숭배와 祭祀(祭儀)가 모두 가문의 딸이나 며느리의 주관 하에 진행된다.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통 가족의 신념을 유지 복원하려는 의도가 이들의 儀式 행위에 기본이 되는 것이다. 여성 가족사 소설로서 이들 작품에서, 딸 혹은 며느리로서 여성은 가족 의례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가문의 내실 있는 안주인의 권위를 이루고, 여성 중심의 연대성을 획득하는 권력 이동의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주요어: '여성 가족사 소설', '가족 의례', '의식(儀式)', '탄생 의례', '성년 의례', '혼인 의례', '제사 의례', '혼성적', '복수적'

여성 가족사 소설은 가계의 연대기적 흐름이 한 가문의 딸이나 며느리에 의해 전개되어 흥망성쇠의 주역이 되는 소설이다. 주로 여성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소설로서 남성의 가치관에 기반한 가족사 소설의 거울을 깨고 여성 가계의 이야기를 쓴 것이다. 남성 중심의 가족사 소설의 텍스트 속에 갇힌 여성의 이미지를 수정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잃어버린 여성의 목소리를 회복하고 있다. 전 시대 가계의 계통성에 대하여 '이질성'과 '분화성'을 공유하며, 혼성적이며 복수화된 가족 구성을 이룬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룬 여성 가족사 소설은 아버지 질서가 몰락한 시기에 여성으로 겪었던 자아의 경험과 가계사의 변천을 반영한 소설이다. 아버지가 부재하는 가계사 내의 여성적 삶에 대하여, 그리고 여성의 감정과 소망에 대하여 여성의 시각으로 쓴 소설을 말한다. 이 소설 장르에는 여성적 양식이나 여성의 독특한 정신을 표현하는 여성 문체의 출현이 병행된다. 그런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여성 가족사 소설에서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가족 의례의 주제이다. 의례는 가족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이 가계의 주역이 되는 소설 장르로서 여성 가족사 소설의 의례적 특성은 각 작품의 지향점을 밝히는 데 기반이 될 것이다.

가족의 중심 주제에서 '의례'는 인간들을 통합시키며 연대적 의미를 강조한다. 가족 의례는 결혼, 장례 그리고 제례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이 다양

하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는 출생·성년·혼인·죽음과 제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퀀스를 엮어간다.¹⁾ 따라서 가족 소설에서 가족 의례 없이 가족의 성격을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며,²⁾ 이 의례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가문의 연대성을 강화시켜나간다. 가족이라는 집단은 다양한 의례로서 개인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개인보다는 집단의 결속력을 강조하는 우리 가족 서사에서 '탄생-혼례-제례'라는 가족 의례는 가족의 특성을 밝히는 중심 주제로 여겨진다.³⁾

이중, 탄생 의례는 가족의 혈통을 수직적으로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띤다. 개인은 탄생을 통해 가문의 일원으로 살아갈 의무를 부여 받는다. 개인은 모두 태어날 무렵부터 가족이라는 집단의 일원으로 살도록 역할 지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는 개인의 집단적 자질을 반영해 준다. 개인의 탄생 의례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혈연 관계를 확장하고 가족의 연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가장 큰 불행으로 여겼던 유교 전통⁴⁾에서 가족 구성원의 탄생은 가장 큰 축제적 행사가 되어왔다.

두 번째 의식인 혼인 의례는 가족이라는 새로운 사회집단을 형성하는 의의를 갖는다.⁵⁾ 아울러 전근대적인 시기에 혼인은 자손을 번성케 하여 조상의 제사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⁶⁾ 근대적 의미의 혼인이 자아 중심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해도, 혼인 의례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결속시키는 기능은 어느 시대에나 여전히 유효하다. 가족의 수평적 확산이

1) Denis Jonnes, *The Matrix of Narrative-Family Systems and the Semiotics of Story*, (Mouton de Gruyter, 1990), p.246.

2) Yi Ling Ru, *The Family Novel*, New York, p.17.

3) 가족의 다양한 의례 행위 중에서 특히 탄생 의례와 혼인 의례 그리고 제사 의례는 동양권에서 가문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집단 의식을 표출해주는 대표적 의식이다.

4) 장주근·황폐강 외, 『한국의 민속사상』(집문당, 1996), p.52.

5) 김용덕, 『한국의 풍속사 1』(밀알, 1994), p.187.

6)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문학아카데미, 1994), p.174.

라 할 혼인 의례는 두 가문 사이의 인연관계를 통해 기존 가족의 형태와 규모를 전환시킨다. 혼인 의례를 통해 두 가문은 가문의 명예와 권위를 확장시키려하고 혼인 당사자들은 새로운 가문의 사람으로서 그 의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 의례는 개인에게나 가문이라는 집단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준다.

마지막 의례로 제사 의례 혹은 조상 숭배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신념과 의식 절차이다.⁷⁾ ⁸⁾ 가족 소설에서 인물들은 제례를 통해 조상의 영광을 과시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한 가족이라는 관념과 집단주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의도를 갖기 때문이다.⁹⁾ 일찍이 휘티스는 “조상은 생존시 일정한 계보관계로 맺어진 자손이 있는 死者이고, 조상숭배란 그 조상에 대한 일련의 신념과 의례”¹⁰⁾라고 말한 바 있다. 조상 숭배 혹은 제례를 통하여 구성원들은 조상을 섬기는 의미와 함께 공동의 安寧을 위하고 조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망¹¹⁾을 반영하는데, 이런 제례 형식은 孝를 근본으로 하는 유교적 전통 사상에서 그 뿌리를 두는 것으로, 이는 한 조상을 기리면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을 확인하고 집단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중대한 가족 의식이다.¹²⁾ ¹³⁾

그런데,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인 가부장제 가족에서는 탄생 의례와 혼

7) 김용덕, 위의 책, p.287.

8) 家를 운영함에 있어 행동의 준칙이 되는 것이 家禮이다. 가례는 통과의례인 관혼상제를 규정한 四禮가 있는데, 사례에서 관례는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의례이고, 혼례는 후손을 낳기 위해 짝을 정하는 의례이고, 상례는 생명을 보내는 의례이고, 제례는 조상을 기리는 의례이다. 그리고 사례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상·제례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성격의 의례였다. (최봉영, 위의 책, p.289)

9) 柳肅·洪喜譯, 『예의 정신 - 禮樂文化와 政治』(동문선, 1994), p.332.

10) 장주근·황패강 외, 『한국의 민속사상』(집문당, 1996), p.51

11) 김용덕, 위의 책, p.284.

12) 옛부터 시집가고 장가들기는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조상의 제사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 혼인에 대한 기대는 가계의 혈통 보존과 조상 숭배라는 의무와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는다.

인 의례를 비롯하여 조상 숭배와 제사¹³⁾의 주관을 연장자인 남성 가장이 이끌어간다. 가족 의례를 남성이 주관함으로써 한 가족 안에서 가부장적 가계 질서가 절대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의 중심 의례를 주관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한 가족의 특성을 밝히는 데 중대한 요소이다. 이장에서 다룬 여성 가족사 소설에서는 탄생 의례, 혼인 의례 그리고 조상 숭배와 祭祀權이 모두 가문의 딸이나 며느리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진행된다.¹⁴⁾ 아버지나 남편이 부재하거나 남성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가족 구조에서 딸이나 며느리의 역할은 그만큼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가문의 의례는 한 가족의 권한을 여當主 중심으로 형성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들의 儀式은 전통 가족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한편으

13) 제사 의식은 삶과 죽음을 일치시키며, 죽음에서는 삶의 분출을 느끼게 하고, 삶에서는 죽음의 무게, 죽음이 주는 험기증과 죽음의 서곡을 느끼게 한다. 삶은 죽음에 이어져 있으며, 죽음은 삶의 표징이자 무한으로서의 열림이다. (장영란 외 지음, 『성과 사랑, 그리고 욕망에 관한 철학적 성찰』(서광사, 1999). p.147.

14) 이효재, '한국 가부장제와 여성', 여성과 사회(창작과 비평사, 1996). p.162. 이 글에서 이효재씨는 한국 가부장제의 성격을 姓 불변의 원칙, 조상숭배와 제사, 재산 상속과 소유권, 혼인제도와 재가금지, 여성노동 등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15) 이는 우리 근대화 시기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결코 낮지 않았었기에, 여성이 국모로 숭배된다거나 제사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신라의 경우가 이와 같았다. 이는 실록에서도 남해왕의 친누이동생 아로가 제사를 주관했다는 것을 통해 여성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아로가 여성이면서 제사를 주관했다는 것은 왕의 동생이어서라기보다는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시조묘는 왕실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제사 장소였다. 그러므로 여성, 그 중에서도 왕실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사제로서 왕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화랑제도의 기원에서도 신궁의 제사의례에서 그 의례의 주관자가 처음에는 여성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신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 못지 않았고 또한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측면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인 면이 하나의 밑받침이 되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조범환, 『우리 역사의 여왕들』, (책세상, 2000). pp.98~100.

로는 그 권한을 강화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띤다.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통 가족의 신념을 유지 복원하려는 의도가 이들의 儀式 행위에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팔로서 며느리로서 여성은 가족 의례를 행사함으로써 가문의 내실 있는 안주인의 면모를 과시한다. 그리하여, 여성 가족사 소설에서는 의례를 통한 가족의 정신적 유대와 가족 삶에 관한 공동의 의식¹⁶⁾이 여성을 통해서 완성된다. 따라서 부재하는 남성 혹은 무기력한 남성으로 인해 강화된 여성의 권한은 가족의 의식 행위에서 더욱더 큰 의미를 발휘하게 된다.

여성 가족사 소설에서 남성 부재로 인해 위축된 가문의 의례는 가부장적 가족의 '종말'을 암시한다. 가족의 의례가 가족의 삶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족 의례의 쇠퇴는 곧 가족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가족의 儀禮가 쇠퇴하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연대성도 희박해지고, 이를 통해 가족의 몰락까지 예견되기 때문이다. 여성 가족사 소설에서는 남성 부재와 무기력으로 점차 쇠퇴해 가는 가족의 명예와 권위를 여성의 의례 수행으로 복원시킨다. 하지만, 의례의 여성적 복원은 단순히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을 재현하는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보다는 남성중심의 가족 의례를 여성이 수행함으로써 가문의 영광을 복원하고 가문 내에서 여성의 권한을 강화시켜 여성 중심의 연대성을 획득하는 권력 이동의 현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성 가족사 소설에는 인물들의 출생과 혼사 그리고 사망과 제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儀式의 모습들이 제시된다. 따라서, 여 當主의 권한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벌이는 다양한 儀式들은 가문의 새로운 정신을 이루고, 이는 새로운 세력 관계를 견고히 해 준다.

16) 이렇 루, 위의 책. p.25.

1. 개인적 의례와 意識的 연대성 - 『토지』

『토지』에서 가족 의례는 고아라는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압축적이면서 개별적인 특성을 보인다. 최씨 일가에 유일한 當主人 최치수의 죽음과 윤씨 부인의 죽음 등으로 가문의 유일한 혈육이며 女孫인 서희는 가족 의례를 감당하기에 고독한 존재였다. 최치수의 죽음 이후 서희가 三年執喪에서 풀려나가기까지 나름대로 외로운 제례를 치르지만, 윤씨 부인의 죽음 이후 서희마저 돌림병이 발병하여 제사조차 지내지 못하고 만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집단적 의례 형식이 주를 이룸을 볼 수 있다. 그것은 先代의 죽음으로 가문이 몰락의 기로에 접어들면서, 제사 의례를 지낼 수조차 없게 되는 불행한 국면에 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민인 용이가 선친의 제사를 지내는 장면에서는 세세한 묘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外孫봉사를 해야 하는 최씨 가문의 의식 절차는 지극히 압축적이거나 생략된 묘사가 지배적이다. 특히, 서희와 길상의 혼인 과정도 그 갈등에 비중이 두어진 것에 비하여 혼례 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이것은 고아인 서희에게 가족 의례라는 형식적 규범이 무의미할 만큼 고독한 단독자의 가계 再建이라는 목적에 더 비중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가는 작품 중간 중간에 제사 의례의 허례성에 대하여 비판함으로써, 전통적인 의식절차의 무의미성을 설파하고, 더 나아가 철저하게 단독자적 존재로 하여금 가족의 형성에서 현실적인 문제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최치수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주인없는 집”¹⁷⁾의 유일한 혈육이 된 서희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지 못한 채 장례를 치르게 된다.

어느때부터였는지 강을 내려다보는 마을 언덕에 터전을 잡았던 영천(永川) 최씨의 일가, 문벌과 재물로써 백 년을 넘게 이 지방에 군림해왔으며 특히 드센 여

17) 박경리, 위의 책 5권, p.225.

인들 손으로 이룩했고 지켜왔었던 최씨집안의 마지막 사내, 이 사내의 장례식에
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상제는 하나, 여식 혼자였다.¹⁸⁾

장례식이 끝나면 비명에 간 고힌을 위해 해원굿을 할 것이며 그 행사에 마을
아낙들은 또다시 치마가 젖을 줄 알았는데 기대는 어긋나서 최참판댁에서는 아무
런 행사도 벌이지 않았다.¹⁹⁾

위의 인용 부분에서 보듯, 최씨 家의 마지막 사내인 최치수의 죽음은 한
집안 가장의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평사리 일대를 관장하
던 절대 군주 혹은 절대적 권위의 상징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최
치수의 죽음은 최씨 家의 영역을 넘어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치수의 죽
음은 그의 권위를 대물림할 이들의 부재로 더할 나위 없이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장례식 뒤에 이어질 解冤굿조차 거
행하지 못하게 되자 최씨 家의 실존적 위기감은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옛부터 조상의 제사 의례는 한 가문의 영광을 기리며 살아있는
자손들간의 연대감을 확장시키는 의식이었다. 따라서 백 년을 넘도록 평사
리 일대에 절대적 권위를 발휘하던 최씨 가문의 당주 최치수의 죽음은 더욱
더 커다란 의례 절차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조상은 집안의 안녕을 보살피는 분들이시다. 불행과 행복을 줄 수 있고 고통과
안락을 내릴 수 있는 그분네들 권능을 알진대, 배부르고 의복이 넉넉하면 감사를
올리는 인사치레는 당연하고 웅당 그리 하여야만 후사가 있을 것임에 그들 입버
릇같이 감찰선생도 썩떡 하나 주는 것을 치더라고, 아무튼 눈앞에 없는 그분네들
과의 수수(授受)관계는 그렇다 치고 그외는 달리 최참판댁은 그들에게 있어 보다
뚜렷하고 지적에서 볼 수 있는 현실로서 존재해 왔다. 그들과 다름없이 두 개의

18) 박경리, 위의 책 2권, p.184.

19) 박경리, 위의 책, p.188.

눈에 입이 하나이며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사람으로서 눈앞에 실감하여 의무를 다 하고 감사를 올려야 할 상대들이었던 것이다. 나라 땅의 임자이신 나랏님은 멀었고 만 석의 벼를 거둬들이는 토지 소유자인 최참판댁은 가까웠다. 그 토지에서 명을 이어나가는 농부들에게는 언덕 위에 높이 솟은 성곽과 같은 기와집, 그 속에서 많은 노비들을 거느리고 사는 그 집의 당주인 최치수는 누가 뭐라 하든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다.²⁰⁾

이처럼 최씨 가문은 이미 혈족의 차원에 머무는 가족이 아니다. 그보다도 최씨 가문의 당주인 최치수는 평사리 전체를 관장하는 가장이자 지주였기에, 그의 죽음은 마을 전체의 제사 의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상제를 여식으로 두고 있는 최씨 가문의 현실적인 상황은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 최씨 가문의 상제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여자아이라는 점은 의례의 대표성을 획득하기에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최치수의 삼년상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 서희가 정신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인용 부분이다.

정월 초하루, 최참판댁 시희는 부친의 삼년집성(三年執喪)에서 풀리났다. 아직 담제(禫祭)가 남아 있었으나 상복은 벗은 것이다. 초석에 올리는 상식(上食)때 철든 사람이라면 육친의 죽음 당시의 슬픔을 되새겨가며 곡을 했을 테지만 어린 서희는 만 이태 동안 조석으로 곡을 할 때마다 슬픔을 키워나갔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날이 지나가는 데 따라 자신이 고아나 다름이 없는 사실과 아울러 부친의 죽음의 뜻을 알기 시작했다. 우제(虞祭), 졸곡(卒哭), 소상(小祥), 대상(大祥)의 행사와 조석상식의 일과는 어린아이에게는 과중한 것이었으나 대신 서희는 그런 것을 통하여 정신이 단련되고 생각이 제법 성숙해졌으며 이제는 의젓한 태도를 서희한테 볼 수 있게 되었다.²¹⁾

20) 박경리, 위의 책 2권. p.186.

21) 박경리, 위의 책. p.257.

부친의 삼년상을 치른 뒤, 할머니인 윤씨 부인의 갑작스런 돌림병으로 최씨 가문은 先代의 완전한 종말을 고하게 되지만, 서희는 조모의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 윤씨 부인의 죽음을 겪은 뒤 곧바로 서희 자신마저 돌림병이 발병하기 때문이다. 부친 최치수의 제사를 지내는 고독한 서희는 윤씨 부인의 죽음을 맞아 올바른 제례를 수행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것은 前代와의 완전한 절연이라는 비극을 상징한다. 최씨 가문의 유일한 혈육인 서희에게 제사 의례라는 가족 의식은 이미 더 이상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유년기의 서희가 일점 혈육 없는 천의 고아로 남게 된 윤씨 가문에서 조상 숭배의 절차는 사치나 다름없을 만큼 현실적인 가문의 존폐 여부가 절대적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초반에 최씨 가문의 유일한 자손인 서희가 先代의 죽음에 대한 제사 의례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고 가족 의식의 현실화가 막혀버리게 된 것은 혼사 의례에서도 유사하다.

『토지』에서 혼사 의례는 생략된 의례에 가깝다. 양반 신분인 서희와 비밀에 쌓여진 내력의 길상은 서로의 대립과 갈등을 겪은 뒤 신분차이를 극복한 혼인을 감행한다. 그러나, 작품의 어디에도 이들의 혼사 의례에 관한 담론은 보이지 않는다. 과감하게 축약된 혼사 의례의 담론은 전통적인 가족의 영역을 상실한 서희에게 가족 의식의 절차마저도 무의미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혼사 의례에 대한 과감한 생략은 탄생 의례에서도 동일하다.

‘주인 없는 집’의 유일한 딸인 서희에게 가족 의식의 절차는 절실한 덕목도 가치도 아니다. 작품 초반에서부터 무너져 가는 가문의 존재는 최씨 가문의 유일한 혈육인 서희에게 전통적인 의식 절차에 집착하기보다는 가족 재건이라는 좀더 현실적인 과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였다. 가족 의식을 수행하기에는 서희 자신의 존재자체가 위태롭기에 가족의 복원과 재건의 단계에서 儀式 절차는 뒷전에 미뤄둘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다. 절대적 권위의 가부장적 가문의 몰락과 함께 상실되어가던 가문의 질서가 서희라는 여성 인물로 인해 점차 재건되는 과정을 가족 儀式의 축약 현상으로 재현하

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서회를 중심으로 한 혈연관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가족 儀式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구성원들간의 연대성도 주변부 인물에 의해 대체되었다. 서회와 유년시절을 함께 해온 길상이와 봉순이, 그리고 용이네와 김훈장 등의 평사리 주민이 그들이다. 이들은 비록 서회와 피를 나눈 혈육이 아니고, 가족 의식을 공유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연대의식을 느낄 수도 없었지만, 최씨 가문의 몰락을 함께 공유하면서 혈육 관계를 넘어선 意識의 연대성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이런 가족 儀式의 축약 현상은 서회가 자신의 아들 代에 이르러 최씨 가문의 재완성을 완벽히 성취해내는 모습을 통해 다시 시도됨을 알 수 있다.

2. 개화된 의례와 혼합적 연대성 - 『미망』

『미망』에서 탄생 의례와 혼사 의례 그리고 조상 숭배의 儀式들은 옛 세대의 낡은 전통을 타파한 개화된 意識을 띠거나, 의례를 통해 진전되는 가족간의 연대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미망』에서 혼사 의례는 晩婚에 소실부보한 태임이와 종상이를 둘러싼 가족 구성원들이 가계와 혈통의 맥을 다시 되새겨보는 계기로 작용한다. 제사 의례 역시 전처만 家의 자손들이 핏줄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확인하고, 서로간의 연대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다만 혼사 의례나 제사 의례가 전처만 家의 순수한 핏줄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대물림해주기보다는 파행적이고 혼합적으로 대물림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작품에서 혼사 의례와 제사 의례는 전통적인 양식과 의미를 그대로 傳受하는 차원에서 실행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분히 混姓의인 양식으로 개화의 사상을 투영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미망』에서의 의례적 특성이다.

『미망』에서 혼사 의례나 제사 의례는 모두 분열이라는 양자에 의해 형식적으로 주도되고, 가족의 구성원들은 전처만의 후손인 태임이의 혼인에 대

해 애수어린 마음을 공유한다. 친정부모도 동기간도 없는 태임이의 혼례는 외롭고 적막한 감회에 싸인다. 또한, 태임이의 혼례를 보는 사람들은 융성했던 가계가 繼孫을 맞게 된 데 대한 안타까움에 사로잡힌다. 전처만의 제사 의례 역시 양자인 분열이에 의해 성대하게 치러지는데, 상인 신분으로 한 가문을 융성하게 발전시킨 전처만의 제사는 후손들에게 남다른 의미이다. 그러나, 이 제사 의례는 전처만 家의 갈등을 가장 집약적으로 재현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미망』에서 혼사 의례와 제사 의례는 전처만 家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족 의식이다. 前代의 영광과 後代의 새로운 질서가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어떻게 변형되는지가 바로 가족 의례를 통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이하고 부성이 두 삼촌이 태임을 위해 이렇게 자라난데까지 신경을쓰는 것은 그들 자신이 낮이 나고 칭송받고 싶다는 속셈도 있었지만 양쪽이 다 조실부모한 고적한 처지를 한껏 호사스럽고 흥청거리는 잔치로 위로코자 하는 자애의 발로이기도 했다.²²⁾

태임이가 시집으로 떠날 때, 비록 울며불며 배웅한 친정 부모도 애뜻하게 매달리는 동기간도 없었지만 많은 동네 사람이 나와서 친척들보다 더 애석해 했다. 동네 사람들의 얼굴엔 슬픔보다 더 짙은 애수가 어렸다. 사람들은 곧 분열이가 양자로 들어와 대를 잇게 되었다는 걸 알건만 태임이의 출가로 한 융성하던 가계의 절손을 보는 것 같은 적막감을 느끼고 있었다. 가계와 혈통은 분열이에 의해 이어질지 모르나, 송도바닥의 전설적인 상인 전처만의 맥, 사람들이 경원하면서도 기리던 돈이 도리와 사람의 도리를 몸소 일치시키고자 했던 전처만의 상혼은 아무나 이룰 수 있다고 여겼던 것도 아니다……태임이는 외탁을 해서 할아버지는 전

22) 박완서, 위의 책 2권, p.105.

혀 닦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태임을 가장 전처만의 핏줄답다고 여기고 싶어했다……그래서 시집가는 태임을 배웅하는 동네 사람들의 표정은 애도에 가까웠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도 의식 못하는 가운데 개성상인의 전성기가 저물어가는 걸 애석해하고 있는지도 몰랐다.²³⁾

전처만의 장손이 병사한 뒤 유일한 혈육인 태임이의 혼례는 이성이와 부성이 삼촌에 의해 삼일 잔치로 성대히 치러진다. 그러나, 화려하게 치러진 태임이의 혼사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애처롭기 그지없다. 태임의 혼례를 보면서, 그 성대한 규모와 달리 태임이의 미래와 전씨 가문의 불안한 운명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양자인 분열이로 하여금 전씨 가문의 외형적인 명맥을 유지했을지라도, 개성상인의 전성기를 누렸던 전처만의 대를 이을 진정한 인물은 오직 태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태임의 혼례를 통해 가문의 장래를 걱정하는 연대 의식이 강화될 수 있었다.

그런데, 태임이의 혼례는 자유연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이며 개화된 의미를 띤다. 전통적인 혼례가 가문과 가문간의 동맹적 형식으로 행해진 것과는 달리 태임이와 종상은 자유로운 구애와 결혼 의례를 실천한다. 前代의 두 가문 사이에서 벌이졌던 불미스러운 사건을 극복하고 혼인 당사자인 태임이와 종상은 자아 중심적인 결혼관을 실행에 옮긴다. 고아로서 자유로웠던 두 인물들의 혼례는 가족 구성원들의 우려와는 달리 독립적인 행로를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미망』에서의 태임이와 종상의 혼례는 전씨 가문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연대 의식을 확인시키지만, 그 기저에는 독립적으로 개화한 가문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제사 의례 역시 혼합된 ‘핏줄간의 갈등’과 ‘가족간의 연대 의식’이라는 이중성을 제시한다. 가문의 권위란 제사를 주관하는 중심 인물을 근거로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전처만의 제사는 전씨 가문의 일원들이

23) 박완서, 위의 책, pp. 111~112.

어떤 구성력을 가지며, 구성원간의 연대 의식이 무엇을 중심으로 발현되는지를 집약적으로 나타내준다. 그리하여 가문의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유대감의 실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전씨 가문에 상인의 신화를 정착시킨 전처만의 제사 의례에 관한 인용 부분이다.

전처만의 제사는 기제사도 보통 부자의 대소상 못지않게 제수 장만을 넉넉하고 화려하게 하기로 수문이 나 있었다……비록 반자식이 후사 없이 요절해 분열이가 대를 이었다고는 하나, 딸 자식들은 그만하면 다 잘돼 선대의 재산을 더 많이 불린 자식도 있고, 실수 없이 지니고 누리는 자식도 있건만 선대에 비하면 많이 허전했다. 장사꾼으로서의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전처만의 위엄은 당대에 쌓아올린 노만의 재산 때문만은 결코 아니었다. 그게 뭔지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는 채로 자손들은 그의 제사를 정성을 다해 성대히 차림으로써 그걸 기리고 아울러 자기들이 그의 후손이라는 걸 남들에게까지 상기시키고자 했다. 그런 자랑스러운 제사에 멧돌 밑에서라도 참례만 시켜주면 감지덕지할 줄 알았는데 충하지 않고 자식 노릇을 시킬 작정이 있는데도 마다한다는 건 뜻밖이었다.²⁴⁾

“제사지내는 걸 왜 빌붙는다고 하시니까, 아재는 남도 아니고 전씨면서요.”

“그들은 날 전씨 취급 안 했어. 아버지 장사 때 상제 노릇도 안 시킨 지독한 사람이야.”

……

“내가 제사에 안 간 건 전씨집 인간들을 실망시키고 싶어서였단다. 그들은 나한테 제사 참례시키는 걸 큰 적선이나 베푸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눈치였거든. 여기 성님이 나한테 한 편지도 그런 투였고, 내가 제사가 지내고 싶어 허기가 켜나 그런 적선을 박게. 지금쯤 아마 갖은 억측들을 하면서 쪼고 까붙고 있을 걸. 날 위해서가 아니라 즈네들이 내민 손이 부끄러워서…….”²⁵⁾

24) 박완서, 위의 책 2권, pp.189~190.

25) 박완서, 위의 책, pp.191~193.

장사꾼으로서 최고의 존경을 받던 전처만의 死後, 후손들은 정성을 다하여 전처만의 제사에 공을 들인다. 자랑스러운 제사에 참여하여 전처만의 후손이라는 걸 확인 받으면서 가족 구성원들은 조상과 자신에 대한 동질감과 가문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전처만의 제사를 통하여 구성원들은 가문의 일원이라는 데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서로간의 연대 의식을 쌓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처만의 庶子인 후성이나 머릿방 아씨의 불륜의 아들인 태남이는 이 연대 의식에 단지 房外者일뿐이다. 그것은 핏줄의 정통성에서 위배된 구성원들에 대한 철저한 배제이며 차별 의식에서 비롯된다. 전처만 家에서 주변부의 자손들인 후성이와 태남이는 핏줄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시종 소외받는 모습인데, 이는 제사 의례를 통하여 가문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문의 영광과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전처만을 회고하는 제사는 전씨 일가의 구성원들이 혼합적이며, 구성원들간의 연대 의식이 적자와 서자간의 차별 의식으로 파격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사를 주관하고 제례의 정당한 일원이라 할 적자들과 여기서 배제된 서자간의 대립은 가문의 갈등과 가문의 해체를 암시한다. 전씨 家에서 적자 중심의 연대 의식은 후성이나 종상이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변화를 예고한다. 그것은 가문의 방외자가 바라보는 안고하고 배타적인 가문에 대한 비난일 터이다. 가문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인물들의 처지 역시 가문의 완고함에 의해 희생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망』에서 제례 의식은 가부장제 가족의 중심 인물인 이성과 부성이에 의해 주관되지만, 가족의 주변부 인물인 후성이나 태남이 그리고 관찰자인 종상이에 의해 시종일관 비판받으면서, 점차 부권 중심적 제사 주관에서 탈피해 가는 면모를 볼 수 있다. 제사 주관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가문의 권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의 지향점을 가늠하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제례의 성격과 의미는 부권에서 탈피하여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점차 이동해 가는 전환의 시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망』에서 가족의 儀式은 전씨 가문 구성원들의 유대감과 갈등의 양

상을 특징짓는 순간으로, 이를 통해 가문의 주도적인 특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여성 가족사 소설로서 이 작품의 의례적 양상은 가문의 정통 남성 가장이 아니라 주변화된 인물로 대체되어 주도됨으로써,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에서 이질적이며 혼성적인 의미를 띤다.

3. 전통적 의례와 宗婦 중심의 연대성 - 『혼불』

『혼불』에서 탄생과 혼사 의례 그리고 제사 의례의 모든 과정은 전통적인 관습에 기반 한다. 가족 의례의 주관자인 1대 청암 부인이 청상이 된 이래로, 의례는 가문의 종부에 의해 절대적인 가치로 신봉된다. 탄생 의례나 혼사 의례 역시 전통적인 가치를 이어가려는 가문의 종부들에 의해 보존된다. 전통적인 가족 행사를 통해 전체 씨족(가족)은 집단의 단합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儀式을 공유하면서 가족 일원은 그 가족만의 고유한 존재감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²⁶⁾

다른 의례들처럼, 초기의 가족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단연 결혼 의례이다. 『혼불』에서 결혼이라는 가족 축제는 가계의 번영을 증명하려는 경향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결혼과 탄생의 가족 의례는 가족 연대성의 가치를 유지시켜준다.

『혼불』의 작품 서두에서 재현되는 결혼 의례는 매안 이씨 가문의 연대성을 강조해 준다. 이 결혼 의례 안에는 가족의 단합과 행복의 기원이 잠재되어 있고, 가문의 고유한 존재적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이씨 가문 종가의 종부 효원에게 제시되는 기대 역시 '아들낳기'라는 출산의 의무에 집중되는 것처럼, 탄생 의례 역시 개인의 가치보다는 전체 가족의 연대적 가치와 존재적 동질감을 획득할 수 있는 행사이다. 그러나, 연대적 가치는

26) 이영 루, 위의 책, p.13.

조상의 기원을 일깨우는데서 그 빛을 발한다. 이 작품에서 조상 숭배는 오래된 家族史의 권위가 순결하게 집중되는 행사이다. 조상의 가치를 기리는 제례 행위는 가문의 가치를 숭배하는 정신인 것이다. 가문의 명예와 권위 그리고 다가올 가문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원하는 정신이 조상에 대한 숭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혼불』에서 가족 儀式은 결혼, 탄생 그리고 제례의 순서로 진행되고, 이 세 단계의 의례는 가문의 구성원들에게 가족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킨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세 단계의 의례는 모두 여성 중심적인 양상이다. 이 가문의 1대부터 의례의 주관자가 남성이기보다는 종부인 여성으로 대물림되면서, 『혼불』에서의 가족 儀式은 시종 여성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의례를 주도하는 인물이 가문의 종부일지라도 의례의 정신은 전통적으로 부권적 가족 질서의 유지·보존에 충실해 있는 것이 『혼불』의 특성이다.

이 작품에서 결혼 의례는 전통적인 양반 가문의 생활 풍습에 기반하여 다분히 고답적인 형식과 의미를 띤다. 대표적인 예로, 결혼 의례는 먼저 議婚이 있는 뒤 請婚書를 주고받는²⁷⁾ 예식 절차를 거친 뒤에 혼인 의례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혼례 후 묵신행의 풍습²⁸⁾까지 치른 후 완결된다. 그리하여, 四柱 단자를 받는 신부측 주인 히담과 부인 정씨의 정중한 태도에서 혼례 절차의 성스러움이 느껴진다. 그러나, 정성을 다한 마음과 예의를 다 한 혼례 절차는 쾌청하지 못한 날씨와 흔들리는 바람으로 불행의 기운이 암시된다. 게다가 청실 홍실의 얽힘은 이들의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을 예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날씨와 실타래에 관한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이 혼례가 전통적인 의례 방식을 고수한 것이었는지라도, 내실 평화로운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근거이다.

그다지 쾌청한 날씨는 아니었다.

27) 최명희, 위의 책 1권, p.13.

28) 최명희, 위의 책, p.74.

거기다가 대숲에서는 제법 바람 소리까지 일었다.
 하기가 대숲에서 바람 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 굳이 날씨 때문이랄 수는 없었다.
 청명하고 별말이 고른 날에도 대숲에서는 늘 그렇게 소소簾簾한 바람이 술렁
 이었다.²⁹⁾

그러나 긴장을 하고 조심하면, 일은 더욱 더디어지고 걸리기 마련인가. 아 니
 면, 워낙 명주실이라는 것이 부드럽고 가늘어, 지리저리 옮기지 않아도 제 타래에
 서 제 실날끼리라도 옮히는 것일까.

그만 실이 꼬이더니 얽히고 만 것이다.

춧!

허담이 혀를 찼다.

하이고도, 어찌꼬오……

사람들 사이에서 잠시 소요가 일었다. 그 수런거림은 불길한 음향을 남겼다.

물론 그것은 작은 매듭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하였다.³⁰⁾

이와 같이 혼례 날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날씨의 맑고 계엄은 의례 행사
 의 운명을 예감해 주는 기호이다. 게다가 청실 홍실이 순탄하게 풀리는 것
 역시 혼례 당사자들의 삶을 예고해 주는 상징적 기호가 된다.

위의 첫 번째 예문은 작품의 1권 첫 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단
 정한 어조로 언급된 불안정한 날씨의 소개가 예사롭지 않다. 흐리고 바람
 부는 날씨는 혼례에 대한 분위기를 짐작케 해주는 효과적인 장치로, 다가올
 불행을 암시하는 전조이다. 어둠이 깔린 하늘과 날씨는 혼례 의례를 축제가
 아닌 불행의 정조로 만들어 놓기에 충분하다. 결혼 의례란 가장 신성하고
 정갈한 기원으로 치장되어야할 순간이다. 따라서 결혼 당사자들이 헤쳐나

29) 최명희, 위의 책, p.11.

30) 최명희, 위의 책, p.24.

갈 운명의 실타래는 비단결같이 풀려나가야 할 터이고, 이들이 살아갈 나날들은 따뜻한 햇볕 속에서 빛나야 할 터이다.

그러나 실타래의 얽힘 또한 혼인 당사자의 순탄치 못한 미래를 상징하여 혼례를 바라보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 혼례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공유하도록 한다. 혼례를 목도하는 가문의 구성원들은 儀式의 모든 절차에 새로운 의미 부여와 관심을 표한다. 청실과 홍실이 엮인 실 풀이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혼인 당사자들간의 행복과 이로 인한 가문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짐쳐 본다. 실타래가 한 올씩 풀려나갈 때마다 혼인 당사자간의 순탄한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혼례에서 실 얽힘을 목격한 가족의 일원들은 한결같이 심상치 않은 운명의 미래를 느낄 수밖에 없다. 혼인할 당사자들간의 사랑이 원만하지 않거나, 이로 인해 가문의 운명에 먹구름을 끼칠지 모른다는 예견,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타래의 얽힘이다.

이처럼 혼인 의례의 과정은 작품 서두에서부터 제시되어 매안 이씨 가문의 중심 의례로 자리잡는다. 그러나, 예사롭지 않은 기후와 儀式의 과정이 전경화 되면서 이씨 가문의 혼인 의례는 그 의미가 밝혀지고, 이 가문에서 혼인 당사자들간의 갈등 양상과 위상이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혼례를 준비하고 목격하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가치에 충실하면서, 이 의례를 통해 가문 안의 연대성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맞도록 한다.

다음으로, 효원이 강모와의 사이에서 아들 철재를 낳은 것은 이씨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드높일 뿐 아니라, 철재라는 가문의 손이 매안 이씨 가문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도록 운명지어지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남편 강모가 종손의 삶을 포기하며 가문을 떠날 때, 효원을 지탱시켜주는 것은 가문 안에서 자신의 위상을 드높여 명예를 회복하는 길뿐이었다. 그것은 손이 귀한 이씨 가문에 '아들 낳기'를 실행해 '대 잇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가능한 일이다. 1대 청암 부인의 기원도 효원의 '아들 낳기'에 집중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종부의 역할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인의 눈에 효원은 우선 아녀자다운 어여쁨과 오밀조밀함보다는 기상과 도량이 있어 보였다.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음성을 내렸다.

“너는 귀한 사람이니라. 온 집안이 경사스럽게 너를 반겨 맞으니, 부디 마 음으로부터 이곳을 네 집이라 여기어라. 이제부터는 여기가 네 집이다. 그리고, 반다 시 아들을 낳도록 해라.”³¹⁾

천만다행히도 조상이 도우시고 하늘이 보살피사 효원이 아들을 낳아, 온 집안에 모처럼 화기만당 훈풍이 돌았으나 그것이 청암부인이 이승에서 누린 잠깐의 마지막 즐거움이었는지도 모른다.³²⁾

1대 종부 청암 부인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효원은 시할머니인 청암 부인의 가르침으로 吸月精의 의식을 거듭한 끝에 부인의 비원대로 아들을 낳는다. ‘아들 낳기’를 향한 효원의 기원은 성스러운 의례로서 발현된다. 그리고 효원의 ‘아들 낳기’는 “조상이 도우시고 하늘이 보살피”신 뜻 깊은 행사이며, 가족의 화목한 결속력과 연대 의식을 강화시켜 주는 행사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단순한 個我의 탄생이 아니라 분명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문의 기대를 짊어지고 집단의 운명을 이끌어갈 인물의 탄생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탄생 의례는 출생한 아이에게는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짊어지며 손이 귀한 이씨 가문의 영속성을 가능케 했으며, 출산을 한 종부에게는 가문의 안주인으로서의 위상을 한껏 부여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매안 이씨 가문의 가족 의례로서 구성원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다름 아닌 청암 부인의 죽음을 기리는 제사 의례이다. 제사 의례는 생존시의 조상의 영광스런 행적을 기리고 살아 있는 자손들이 이를 본받아 살도록 기원하고, 조상의 보살핌 하에 가문의 미래 또한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바라는 행위이다. 한 평생 청상의 몸으로 쇠락해가는 이씨

31) 최명희, 위의 책 1권, p.201.

32) 최명희, 위의 책 2권, p.216.

가문의 복원에 힘쓰고, 밖으로는 일제하 서민들의 곤궁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 저수지 개발에까지 주력했던 청암 부인은 후손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한평생 “가문의 뼈대를 맡은”³³⁾ 종부로 가문의 “정신적 골격”까지도 지키려 애썼던 청암 부인의 혼을 기리는 의례는 어느덧 이씨 가문의 신앙이 되었다. 자신의 개인적 욕망보다는 자신이 짊어진 책임을 중히 여기던 청암 부인의 정신은 부인의 死後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제사 의례를 통해 청암 부인의 정신이 영원히 살아 숨쉬며 삶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혼불』에서의 제사 의례는 무엇보다도 청암 부인을 땅에 묻는 平土祭로 집약된다. 땅과 하나가 된다는 평토제에서 비로소 후손들은 조상의 죽음과, 인간이란 원래 태어난 땅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자연의 일원임을 수궁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덧 무덤은 평토(平土)가 되고 말았다.

이제는 관이나마 가까이 있었던 위안조차 가질 수 없게, 망인은 저 다져진 황토 아래 깊이 묻히어 다시는 이승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³⁴⁾

평토야말로 어머니가 참으로 죽었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였다. 그것은 엄 연히 경계선이였다.³⁵⁾

삶과 죽음의 경계를 알리는 평토제라는 儀式에서 후손들은 청암 부인의 죽음을 사실로 인정하게 되며, 엄연히 존재하는 두 세계의 경계를 확인한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리게 되는 조상과 후손들의 양분된 세계는 제사 의례를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제례는 망인의 살아 생전을 회상

33) 최명희, 위의 책 3권, p.164.

34) 최명희, 위의 책, p.272.

35) 최명희, 위의 책 4권, p.273.

하고 정신을 추모하는 의미이다. 자기 희생적이며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던 청암 부인의 삶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더 빛을 발한다. 자신의 죽음을 기리는 제례를 통해서까지 이웃 사람들의 궁핍함을 달래주려 했던 청암 부인의 숭고한 정신은 아들 이기채에게 대물림되어 그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나 죽고나서 제사가 돌아오거든 모쪼록 음식을 걸개 하여 아끼지 말고, 술도 많고 빚고, 떡도 많이 하고, 도야지도 잡어서, 그 하루 너나없이 온 동네가 다 재미나고 풍족하게 노나 먹도록 해 주어라. 슬피 울어 곡소리 진동하게 허는 대신, 내 제삿날이 흥겹고 좋은 날이 되도록 부디 성심을 기울여 다오.”³⁶⁾

위의 인용 부분에서 보듯, 청암 부인의 마지막 유언은 살아생전 부인의 삶이 얼마나 이타적인 정신에 기반한 것이었나를 반영해 준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웃의 평안을 누리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청암 부인의 유언은 이씨 가문이 양반 가문의 이기심이나 권위주의를 넘어서서 가족의 정신을 확대하여 살기를 후손들에게 일깨운다. 그것은 대개의 제례가 가족의 연대성을 확인하고 조상의 보살핌을 추구하는 의미와 달리, 청암 부인의 제례는 가족의 울타리를 확장시켜 전체 이웃의 安寧을 염두 하는 대의적인 양반의 면모를 과시해 준다. 이로써, 이씨 가문의 후손들은 개인보다는 전체 가족을, 가족보다는 가족을 넘어선 확장된 공적 영역에까지 관심을 넓히는 계기를 제사를 통해 되새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혼불』에서 청암 부인의 제사 의례는 청상인 종부의 희생적 삶을 기리는 차원에서부터 가문의 영광을 기원하며 부인의 대의적 삶을 실천적으로 보존하려는 다양한 의미까지로 확장된다.

『혼불』에서 전통에 입각한 혼사, 탄생, 제사 의례 등은 종가인 이씨 가문

36) 최명희, 위의 책 4권, p.248.

의 집단적 가치를 확장시키도록 해 준다. 혼사 의례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혼인을 하는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행·불행이 아니라 가문의 일원으로서 기대되는 집단적 역할 수행의 가능성이다. 탄생 의례도 탄생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가문의 대를 이어갈 역할에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제사 의례 역시, 청상의 불행한 개인사를 살아온 청암 부인의 혼을 기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녀의 이타적 삶을 보존하여 가문의 영광을 한 차원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 작품에서 제사 의례가 종부인 청암 부인에게 집중되는 것은 매안 이씨 가문의 정신적 가치와 가족 의식의 중심 축이 여성에게 있음을 예시하는 것이다.

4. 父性 의식의 약화와 다원적 가계

출생과 혼인, 죽음과 제사 등은 인간의 역사에서 주된 시퀀스이며, 가족 소설의 중심 주제는 이런 '의례'에 의해 반영된다. 가족은 다양한 의례로서 구성원들간의 연대성을 강화하는데, 이는 탄생-혼례-제례의 가족 의례로 구성된다. 그런데, 여성 가족사 소설에서는 남성 부재와 무기력한 남성의 권함으로써 인해 부권적 의례는 약화되거나 의례가 해체되어 가족 의례의 권한이 전통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 여성주도하에 수행된다. 아버지나 남편이 부재하거나 혹은 남성의 권한이 위축된 위기의 가족 공간에서 딸이나 며느리의 역할은 순응적인 차원에 머물 수만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가족사 소설에서 '의례'의 기표는 여성 중심적인 새로운 가족의 권한이 출현하는 기의가 된다.

『토지』에서 가족 의례는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마을 단위의 집단적인 儀式의 절차를 밟는다. 그리고, 그런 집단적 儀式에는 고아인 최석희를 중심으로 하는 평사리 마을 사람들의 意識의 연대성이 근본을 이루고 있다. 이는 전통 가족 안에서 가능했던 형식적 가치가 이제 더 이상 절실한 덕목일

수 없는 상황하에서, 서희를 주축으로 하는 연대적 인물들의 가문 살리기 혹은 가문의 실체를 회복하려는 현실적인 욕구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토지』에서는 최씨 家 유일의 남성인 치수의 제례도, 서희와 길상의 혼례도, 서희의 득남과 탄생 의례의 절차도 과감히 축약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이 작품에서 주된 儀式 절차가 최씨 가문의 영광을 복원하려는 혈육간의 儀式 차원 행위가 아니라 意識의 연대적 행위로 전이되었음을 보이는 것이다.

『미망』에서 탄생 의례, 혼사 의례 그리고 조상 숭배의 의식들은, 가족의 순수 혈통에서 벗어난 제3의 인물들과 여 가장이 주도하는 개화적·혼합적인 근대성의 연대를 이룬다. 이는 개성 상인의 자유로운 의식과도 관련성이 있는데, 가문의 영광을 기리는 가족 의례를 수행하되, 전통 의식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反 전통적인 의식을 제시하거나 혼합적인 혈육에 의해 주도되는 혼성적·복수적 양상의 의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미망』에서의 가족 의례는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가족 儀式을 수행하되 그 정신은 변화하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혼불』에서 가족 의례는 여성 인물에 의해 주도되기는 하지만 그 절차는 전통적인 의식에 기반 한다. 결혼, 탄생 그리고 제례의 순서로 진행되는 『혼불』에서의 가족 의례는 고답적이면서 대의적이다. 먼저 결혼 의례는 개인간의 결합 차원이기보다는 두 가문간의 결합으로서 새로운 가족의 출현을 뜻하는 것으로 가족 구성원들은 이들의 혼례를 통해 새로운 가문의 영광을 희망하게 된다. 탄생 의례 역시 개인의 출생으로 간주되기보다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위치지어진다는 점에서 공적인 의미가 강하다. 마지막으로 제례 행위는 『혼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는 단지 청암 부인의 영광스런 삶을 기리고 가족간의 연대성을 확인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부인의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로 확대된다. 그러므로 『혼불』에서 혼례, 탄생 의례, 제례의 의식 절차들은 모두 개인이 아니라 가문이라는 집단적 차원의 역할 수행에 집중되어 있다. 아울러 가족 의식의 절차가 여성

중심으로 주도될지라도, 그 실질적인 정신은 사뭇 전통적인 가족의 영광을 동일시하는 차원에 모아지고 있다.

■ 필자 : 동덕여자대학교 강의전임교수

참고문헌

- 김용덕, 『한국의 풍속사 1』. 밀알. 1994.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화아카데미. 1994.
이효재, '한국 가부장제와 여성', 『여성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 1996.
장영란 외 지음. 『성과 사랑, 그리고 욕망에 관한 철학적 성찰』. 서광사. 1999.
장주근 황패강 외, 『한국의 민속사상』. 집문당. 1996.
조범환, 『우리 역사의 여왕들』. 책세상. 2000.
Denis Jonnes, *The Matrix of Narrative—Family Systems and the Semiotics of Story*, Berlin : Mouton de Gruyter. 1990.
Yi Ling Ru, *The Family Novel*, New York. 1992.

Abstract

‘The Ritual and Solidarity’ of
Family-history Novels by Women Writers

Oh, Se-Eun

The Feminine Family History Novel to be studied in this article deals with a chronicle report of a family focusing on daughters or daughters-in-laws. They are mainly written by women novelists, and broke the mirror of Family History Novels that were based on patriarch values. In Feminine Family History Novels, honor and authority of family that are getting degraded due to the disappearance of Real Patriarchism and lethargy, are restored by women. Family rituals are performed by women. They restore the glory of the family, and enforce their rights in the family. They make authority shift by acquiring the women oriented unity. In these novels, authors present diversified rituals from birth, marriage to death and memorial services. Accordingl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itual ceremonies, and their meanings represented in the Feminine Family History Novel. In the novel, various kinds of ritual ceremonies of family members hosted by a new woman leader create a new spirit, and strengthens the new hierarchy.

First, in “Toji (Land)”, family rituals are forced as consciousness solidarity by the people who are out of status and blood category. Although, there were no relatives of the heroine by blood and they could not feel solidarity experienced by sharing family consciousness

in this novel, we can experience unity of consciousness that is over blood relationships when facing the ruin of Choi's family by surrounding people. Second, in "Mimang" rituals show civilized mixed unity that is driven by third parties out of pure bloodline of family and a matriarch. In this novel we can see the mixed multiple characteristics where family rituals and characteristics are separated from patriarch center and multiplexed. Third, in "Honbul" family rituals such as wedding, birth, and memorial services expand the value of Lee's family that is the head family. However, although, the rituals were driven by the matriarch in this novel, the spirit remained in the patriarch consciousness.

As above "Toji", "Mimang" and "Honbul", rituals were driven by women, or diversified surrounding people, not by men, so that the authority of family was shifted from the patriarch system. Women show their qualifications as a hostess by performing family rituals as a daughter and daughter-in-law. Therefore, female family history novels cause the shift of authority and power by making a heroine perform family rituals that used to be performed by men, restoring the glory of the family, enforcing the authority and power of women and acquiring women oriented unity.